2020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 답

1	⑤	2	③	3	④	4	①	5	①
6	③	7	④	8	④	9	⑤	10	②
11	②	12	④	13	②	14	①	15	①
16	③	17	⑤	18	④	19	③	20	⑤
21	②	22	①	23	③	24	④	25	③
26	④	27	②	28	②	29	③	30	⑤
31	④	32	②	33	②	34	⑤	35	①
36	③	37	④	38	⑤	39	①	40	②
41	⑤	42	③	43	①	44	④	45	⑤

해 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을 이해한다.

마지막 문단에서 발표자는 청중에게 발표의 화제인 윷놀이에 참여해 볼 것을 독려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마무리 부분에서 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지난 설날에 윷놀이를 직접 체험했던 경험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개하고자 윷놀이를 발표 화제로 선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② 3문단, 4문단에서 '화면을 가리키며', 5문단에서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③ 1문단에서 질문을 던진 뒤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고, 2문단에서 질문을 던진 뒤 청중의 대답을 듣고 이에 반응하는 등,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윷놀이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목은집』이라는 구체적인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 내용을 이해한다.

4문단을 보면 윷가락에 사용되는 윷가락은 한 면은 둥글고 한 면은 평평한 짧은 나무 막대기인데, 윷가락의 둥근 부분을 '등'이라 하고, 평평한 부분을 '배'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활동지에서 ㉢은 발표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윷놀이를 언급한 문헌 자료를 통해 윷놀이가 고려 시대에 성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윷놀이의 말판이 과거에는 원형이었으며, 원을 그리고 있는 바깥의 점들은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을, 원 안쪽에 있는 열십자 모양의 점들은 땅을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윷이나 모를 '사리'라고 하며 이 경우 한 번 더 윷을 던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윷 패가 나올 확률은 대략 개와 걸은 각각 35%, 도는 15%, 윷은 13%, 그리고 모는 2%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청자의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6문단에서 윷놀이를 할 때 윷 패가 나오는 확률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보기>의 청자는 자신이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을 해 본 경험을 떠올리며 이 게임에 실제 윷놀이를 할 때 윷 패가 나오는 확률이 적용되었는지를 궁금해 하며 듣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아쉬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발표 내용 중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있는 반응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이 발표의 목적은 청중에게 윷놀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윷놀이를 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의 청자는 이러한 목적이 발표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며 듣고 있지 않다. ⑤ 윷놀이를 할 때 윷 패가 나오는 확률에 대한 내용은 발표에서 언급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배경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지는 않다.

4. [출제의도] 인터뷰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ㄱ은 (가)에서 인터뷰하는 학생의 세 번째 말인 '결국 제품의 소리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군요. 제 말이 맞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은 학생의 다섯 번째 말인 '가짜 엔진 소리요? 그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을 이해한다.

[A]에서는 '방금 전에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나요? 그 소리가 나는 제품이 떠오르지 않았나요?'라고 말하며 청자의 경험을 환기하며 제조사에서 사운드 디자인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B]에서는 자동차의 경보음, 휴대폰 벨소리, 자동차의 가짜 엔진 소리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사운드 디자이너가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작문 계획을 파악한다.

<보기>에서 편집부장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되, 인터뷰에는 없는 내용을 언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인 (가)와 '초고'인 (나)를 비교할 때, 4문단에 있는 사운드 디자이너와 관련된 전공 학과를 소개하는 내용이 편집부장의 요청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운드 디자이너의 작업 과정은 (가)와 (나)에 모두 없는 내용이다. ②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갖는 보람은 (가)와 (나)에 모두 없는 내용이다. ④ 사운드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가)에만 있다. ⑤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긴 배경은 (가)와 (나)에 모두 없는 내용이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을 썼는지 파악한다.

'제품에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 소리의 마법사'는 비유법과 사운드 디자이너의 역할이 모두 드러난 제목에 해당한다. 사운드 디자이너를 '소리의 마법사'에 비유하고 있고, '제품에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에는 사운드 디자이너의 역할이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① 비유법과 사운드 디자이너의 역할이 모두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연결 고리'에서 비유법만 드러나 있다. ③ '소리의 샘'에서 비유법만 드러나 있다. ⑤ 비유법이 드러나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에 따라 내용을 이해한다.

3문단의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 1층 전시실에서 작가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작품을 둘러보았다.'에서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을 방문하여 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거기서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는 군산을 답사지로 택하게 된 이유로 국어 시간에 배운 채만식의 삶과 문학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는 기차를 타고 익산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군산까지 가는 여정이 드러나 있다. ③ 2문단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된 길과 일본식 가옥의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⑤ 5문단에는 군산항에서 금강의 혼탁해진 물빛을 바라보며 『탁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떠올리며 감상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다.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한다.

(가)의 자료는 일제 강점기 때 전국 쌀 수탈량 중에서 군산의 쌀 수탈량이 40.2%로 가장 많음을 보여주고 있고, (나)의 자료는 『탁류』의 배경인 군산 지역에서 미두장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혼란한 상황과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산이 소설 『탁류』의 배경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개연성을 언급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글을 읽고 바르게 고쳐 쓴다.

1층 전시실을 구경하고 2층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은 순차적으로 이어지므로 '그런데'가 아닌 '그리고'라는 접속 표현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기본형이 '설레다'이므로 '설레는'이 적절한 표현이다. ③ 조사 '에'는 부사격 조사이므로 관형격 조사 '의'가 적절한 표현이다. ④ '재현'은 '다시 나타나다.'라는 뜻이므로 '다시'와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시'를 삭제한다. ⑤ 주어인 '질곡이'와 서술어인 '느꼈다'의 호응 관계가 부적절하므로 '느껴졌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고쳐 쓰기 방안이다.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양상을 파악한다.

'색연필'은 'ㄴ 첨가'에 의해 [색년필]이 된 후, 비음화에 의해 [생년필]이 되므로, 첨가와 교체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난다. 이를 좌표에 적용하면, 첨가의 경우 위쪽으로, 교체의 경우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각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났으므로 '색연필[생년필]'은 별표에서 ㉰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과 음운의 수가 한 개 늘어남을 좌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부정 표현을 이해한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에는 '-지 아니하다'라는 긴 부정 표현이 사용되었다. 또한 비가 내리지 않은 현상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는 의지나 능력이 아닌 단순히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 표현으로, 단순한 사실 부정에 해당한다. ② '안'을 사용한 짧은 부정 표현으로, 의지 부정에 해당한다. ③ '-지 못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 표현으로, 능력 부정에 해당한다. ⑤ '-지 아니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 표현으로, 의지 부정에 해당한다.

13. [출제의도] 어간과 어근의 개념을 이해한다.

둘째 문단에 따르면 '어간'은 용언 등이 활용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높다'는 '높고', '높지'와 같이 활용하는데, 이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높-'이다. 반면 셋째 문단에 따르면 '어근'은 단어를 구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또한 어근을 분석할 때에는 어간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높다'는 어간과 어근 모두 '높-'으로 동일하다.

14.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을 이해한다.

[자료]에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자라다'이다. '자라다'의 어간과 어근 모두 '자라-'로 동일하다. b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먹히다', '치솟다', '휘감다'이다. '먹히다'의 어간은 '먹히-'이고, 어근은 '먹-'이다. '먹히-'는 어근 '먹-'에 접사 '-히-'가 결합된 단어이다. '치솟다'의 어간은 '치솟-'이고 어근은 '솟-'이다. '치솟-'은 어근 '솟-'에 접사 '치-'가 결합된 단어이다. '휘감다'의 어간은 '휘감-'이고 어근은 '감-'이다. '휘감-'은 어근 '감-'에 접사 '휘-'가 결합된 단어이다. c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검붉다'이다. '검붉다'는 어간은 '검붉-'이고 어근은 '검-', '붉-'이다. '검붉-'은 어근 '검-'과 어근 '붉-'이 결합된 단어이다.

15. [출제의도] 목적어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한다.

'산책을'은 체언 '산책'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된

경우로 '체언 + 목적격 조사 '을/를''의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이사도'는 체언 '이사'에 '역시'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도'가 붙은 경우로 ㄱ에 해당한다. ③ '꽃구경'은 체언 '꽃구경'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로 ㄴ에 해당한다. ④ '배낭여행'은 체언 '배낭여행'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로 ㄴ에 해당한다. ⑤ '한길만을'은 체언 '한길'에 '단독'이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만'과 목적격 조사 '을'이 함께 쓰인 경우로 ㄷ에 해당한다.

[16 ~ 21] (인문사회복합) 김진우, 『언어와 뇌』

실어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최초의 결합주의 모형은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이다. 이후 리시트하임은 베르니케 모형에 개념 중심부를 추가하여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은 실제로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제외되어 있고, 개념 중심부의 위치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뇌의 언어 중추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게쉬윈드는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는 리시트하임의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는 대신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다. 그의 모형에서 베르니케 영역은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자,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며, 운동 영역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각회는 시각 형태의 정보를 청각 형태로,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의 정보로 전환하는 곳이다. 이러한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은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된다.

16.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8문단을 보면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되는 이론은 '베르니케 모형'이 아니라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실어증이란 후천적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베르니케 모형'에서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의 두 언어 중추를, '리시트하임 모형'에서는 개념 중심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의 세 언어 중추를,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에서는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의 네 언어 중추를 설정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그는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3문단에서는 '리시트하임 모형'의 베르니케 영역을 '일종의 머릿속 사전으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로 설명하고 있고, 5문단에서는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의 베르니케 영역을 '소리의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두 모형 모두 베르니케 영역에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리시트하임 모형'에서는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②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은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곳으로 언어 중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리시트하임 모형'은 듣기와 말하기 과정에 대한 설명만 가능할 뿐, 읽기와 쓰기 과정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은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에 해당한다. ④ 4문단을 보면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 7문단을 보면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에서 듣기 과정은 '기본 청각 영역 → 베르니케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기본 청각 영역은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곳이므로, 두 모형 모두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상 논리적 관계를 추론한다.

3문단의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은 쌍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개념 중심부에서 형성된 의미가 베르니케 영역으로 직접 송부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말하기 과정이 '개념 중심부 → 브로카 영역 → 베르니케 영역 → 브로카 영역'과 같이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까닭은,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 번째 브로카 영역은 개념 중심부에서 형성된 의미를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정보가 송부되는 것은 듣기 과정에 해당한다. ②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사이의 정보는 일방향으로 흐른다. ③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할 수 있다. ⑤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지만 이것이 복잡한 절차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만일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직접 정보가 송부될 수 있으면 브로카 영역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한다.

7문단의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어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 쓰기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쓰기 과정에서 (다)의 베르니케 영역은 각회에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5문단을 보면, 베르니케 영역은 말하기와 쓰기 과정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 ② 6문단을 보면, 각회는 쓰기 과정에서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하여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 ④ 6문단을 보면, 브로카 영역은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이외에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 ⑤ 6문단을 보면, 운동 영역은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보기>의 실어증 환자 증상을 보면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시트하임과 게쉬윈드 모두 브로카 영역에서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므로, <보기>의 환자에 대해 A, B 모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는 베르니케 영역에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하는 증상과는 관련이 없다. ② A, B 모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할 것이다. ③ B는 베르니케 영역이 단어가 소리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곳이자,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④ A는 개념 중심부에서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대두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다.'의 의미로, 문맥상 '생기면서'로 바꿔 쓸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명명하다'는 '사람, 사물, 사건 따위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이다.'의 의미로, '이름 붙이고'로 바꿔 쓸 수 있다. ③ '수용하다'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의 의미로, '받아들이는'으로 바꿔 쓸 수 있다. ④ '담당하다'는 '어떤 일을 맡다.'의 의미로, '맡는다고'로 바꿔 쓸 수 있다. ⑤ '의거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의 의미로 '따르면'으로 바꿔 쓸 수 있다.

[22 ~ 26] (고전시가 수필 복합) (가) 윤선도, 「오우가」/(나) 박완서, 「꽃 출석부 1」

(가) 윤선도, 「오우가」

화자가 자신의 벗이라 여기는 다섯 자연물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을 자신의 벗이라 여기고 있는데, 각각의 자연물을 <제2수>에서 <제6수>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덕성을 이끌어내고 예찬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 박완서, 「꽃 출석부 1」

글쓴이는 자신의 마당에 핀 복수초가 눈을 녹이고 피어나 해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복수초의 강한 생명력에 경탄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자신의 마당에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이 계절의 질서에 맞춰 차례대로 피는 모습을 보면서 꽃들에 대한 기다림과 애정을 담아 꽃 출석부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제2수>에서 '검기', 제3수에서 '푸르는 듯', 제5수에서 '푸르니' 등을 통해, (나)의 '흑갈색 잔뿌리', '검은 흙', '샛노란 꽃', '진한 황금색', '더욱 샛노랗게' 등을 통해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는 <제4수>의 '~눈서리를 모르느냐', <제5수>의 '~어이 비었느냐', <제6수>의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으로 볼 만한 구절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나)에서는 '축 처진'에서 의태어 '축'이 음성 상징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에서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등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표출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화자는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는 달의 모습을 보면서 광명의 존재로서 달을 인식한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과묵함을 달의 속성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높이 떠 있는 것이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4수>의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는 눈서리 속에서도 솔의 잎이 지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눈서리는 시련을 의미

하므로 이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굳건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제5수>에서는 사계절 푸른 모습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여기서 푸른 모습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본모습을 지켜 나가는 꿋꿋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나)에서 글쓴이는 복수초의 약해 보이는 겉모습을 보면서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하찮은 잡초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해 복수초의 강인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두터운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복수초의 모습에 역경을 이겨 내는 생명력이라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시상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B, C, D에는 A에서 제시된 다섯 사물의 덕성을 예찬하는 내용이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의 시선은 B, C, D 모두 중심 소재인 다섯 사물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D에서 화자는 광명과 과묵함의 존재인 달이 내 벗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화자의 시선이 내면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의 <제1수>에서는 다섯 벗을 '수석', '송죽', '달'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수석은 무생물, 송죽은 생물, 달은 천상의 자연물이므로 적절하다. ② B의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종장에 제시된 물과 바위의 덕성을 부각하고자 이와 대조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인 구름, 바람, 꽃, 풀을 각 수의 초, 중장에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소재를 예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B의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초장과 중장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고, C의 <제4수>의 초장, <제5수>의 초장, 중장에서도 대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B에서 대구로 인해 형성된 운율감은 C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제1수>에서 언급된 다섯 자연물은 이후 <제2수>에서 <제6수>까지 각각의 수에서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대상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파악한다.

(가)의 <제3수>에서 화자는 종장에 제시된 자연물 '바위'의 덕성을 예찬하고자, ㉠에서 이와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자연물 '꽃'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꽃은 피었다가 쉽게 지는 가변적 존재로 그려져, 변치 않는 모습을 가진 바위와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화자는 바위와 대조적인 존재인 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바위를 벗으로 인식하면서 꽃에 대해서는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나)의 ㉡에서 글쓴이는 제일 먼저 눈 쌓인 땅을 녹이고 더욱 샛노랗고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는 복수초를 보면서 '고 작은 풀꽃'이라고 말하며 기특해 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초는 글쓴이가 친근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는 '꽃'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이, ㉡에는 '꽃'에 대한 글쓴이의 이질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에는 '꽃'에 대한 화자의 안도감이, ㉡에는 '꽃'에 대한 글쓴이의 불안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에는 '꽃'에 대한 글쓴이의 애상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에는 '꽃'에 대한 화자의 자괴감이 나타나 있지 않다.

26. [출제의도] 제목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글쓴이는 마당에서 차례대로 피는 꽃들의 번호를 매기며 이를 '출석부'라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글쓴이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계절에 맞춰 피어나는 꽃들에 대한 애정과 기다림, 기대감을 '출석부'라는 말에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출석부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꽃이 피는 마당이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이 나타나 있지만,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을 심고 싶은 마음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글쓴이는 복수초를 비롯하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꽃들에 대해서도 애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화려한 꽃의 가치를 우선시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의 질서에 따라 꽃들은 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조급함이 나타났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마당에 피어난 꽃들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타나 있지만, 이는 출석부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27 ~ 30] (현대소설) 김연수, 「리기다소나무 숲에 갔다가」

'나'는 삼촌과 함께 덕유산 일대의 리기다소나무 숲으로 멧돼지 사냥을 가게 된다. 그해 5월 대학생이 집회 도중 분신자살한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자원입대를 신청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나'는 인간이 왜 목숨을 잃게 될 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또한 카페 윤 마담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 소동까지 벌였던 삼촌이 사랑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 만큼의 용기는 없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했는지, 자살 소동을 벌인 것이 오기가 아닌지 궁금해 한다. '나'와 삼촌의 사냥에 동행한 도라꾸 아저씨는 솜씨 좋은 포수였지만, 어느 날 '총을 꺾어버린' 인물이다. 리기다소나무 숲에서 멧돼지를 만난 '나'는 방아쇠를 당길 뻔했지만 겨냥만 한 채 엄청난 인내심으로 쏘지 않는다. 삼촌은 멧돼지를 쫓아가 총구를 겨눴지만 멧돼지의 눈을 보고 옛 애인이 떠올라 끝내 총을 쏘지 못해 달려드는 멧돼지에 몸을 받쳐 부상을 입는다. 결국 도라꾸 아저씨는 삼촌의 총을 주워 멧돼지에게 위협 사격을 가하여 쫓아낸다. 인용된 지문은 이 소설의 결말 부분으로 부상당한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라꾸 아저씨와 '나'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도라꾸 아저씨의 과거 멧돼지 사냥 경험이 전달되며, 이를 통해 리기다소나무 숲에서 벌어진 사냥에서 도라꾸 아저씨가 멧돼지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밝혀진다. 그는 과거의 멧돼지 사냥 경험을 통해 척박한 환경에서 잘 견디지만 목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리기다소나무뿐만 아니라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으로 여겨져 퇴치 대상이 되곤 하는 멧돼지 역시 숨탄것으로서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며, 생명이 이념이나 사랑, 공명심 등 어떠한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된 부분은 '나'와 도라꾸 아저씨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도라꾸 아저씨는 '아까 왜 멧돼지를 안 죽였'냐는 '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과거의 멧돼지 사냥 경험을 회상한다. 이 회상을 통해 현재의 멧돼지 사냥에서 엽견 호식이가 어미 멧돼지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끼 멧돼지의 관절을 물고 늘어졌던 것과, 과거 도라꾸 아저씨가 어미 멧돼지를 사냥했던 방법이 연결되며 현재 도라꾸 아저씨가 멧돼지를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진다. 이러한 점에서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제시된 부분에는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되고 있지 않다. ③ 세 인물이 숲속에서 빠져나와 산길을 걸어 내려간다는 점에서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 있으나, 인물 간의 갈등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요약적 서술과 대화가 교차되는 부분은 있으나, 그를 통해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⑤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적 내용을 파악한다.

삼촌은 엽견 호식이가 자신을 닮았다는 점에서 '영물'이라 부른 것이 아니다. 엽견 호식이가 어미 멧돼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새끼 멧돼지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영물'이라 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감정 정리를 하는지 삼촌의 만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므로'에서 앞에서 삼촌의 만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금 전까지 사랑이 어쩌네 수면제가 어쩌네 징징거리던'에서 삼촌이 한 이야기의 내용이 사랑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③ '불질 잘한다고 알려지만 ~ 영웅 되고 참 재미나지.'와 '마을에서 영웅 대접 받고' 등에서 도라꾸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냥꾼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전 줄거리를 보면 도라꾸 아저씨가 부상당한 삼촌을 업고 숲길을 걷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우리는 리기다소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라꾸 아저씨는 지친 기색도 없이'라는 내용을 종합할 때, 도라꾸 아저씨가 부상당한 삼촌을 업고 하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새끼를 잃은 어미 멧돼지의 눈을 보고 난 후 사냥을 접은 도라꾸 아저씨가 자신이 삼촌을 좋아하는 이유로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애인 생각나서 총 못' 쏜 것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삼촌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대화의 양상을 통해 인물을 이해한다.

㉠을 통해 '나'는 새끼 멧돼지의 생명을 도구 삼아 어미 멧돼지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멧돼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도라꾸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통해 과거의 멧돼지 사냥에서 쏴 죽인 것이 멧돼지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도라꾸 아저씨의 말을 '나'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 놀라움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도라꾸 아저씨는 '나'의 질문을 가로막고 있지 않다. ④ ㉡에서 '딴소리' 앞에 있는 '또'의 경우 아저씨가 딴소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냉소적 태도가 약화된다고 이해하기 어렵다. ⑤ '의구심'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에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은 ㉠에 담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무산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도라꾸 아저씨가 새끼 멧돼지를 잃고 생의 의지를 상실한 어미 멧돼지와 시선을 마주침으로써 자연을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며,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생명으로서 평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남을 설명하고 있다. 새끼의 생명을 수단으로 어미 멧돼지의 생명을 빼앗는 사냥법을 '암수'라고 한 것은 삼촌이 아니라 도라꾸 아저씨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새끼 멧돼지를 보이는 족족 쏴 죽임으로써 어미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도라꾸 아저씨가 죽은 새끼들을 쫓아 온 어미 멧돼지의 텅 빈 눈을 보고 한참을 쏘지 못했다고 말한 데서, 어미 멧돼지와 시선을 마주한 것이 인식이 변화된 계기임을 알 수 있다. ② 도라꾸 아저씨가 자신이 한때 헛되 공명심에 눈이 멀어 '해수구제'로 영웅 대접 받는 것을 재미나게 여겼다는 점에서 멧돼지와 같은 동물을 인간과 동등한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사냥꾼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산 것들 저래 살아가게 하는 일'이 용기 있는 일임을 깨닫고 이후 약실에 돌멩이 하나 못 재어 넣게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도라꾸 아저씨가 자신이 한 번 죽었다고 말한 것은 멧돼지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사

냥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 도라꾸 아저씨는 과거 어미 멧돼지의 텅 빈 눈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리기다소나무, 직박구리, 청솔모 등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31～34] (예술) 박홍순, 「미래주의 회화 운동」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미래주의 운동을 소개한 글이다. 이 글은 미래주의 회화가 운동과 속도를 특성으로 하는 산업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 운동으로 등장하였음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미래주의 회화에서는 연속 사진의 촬영 기법에 영향을 받은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지향하고자 했다. 즉, 이미지의 겹침, 역선, 상호 침투의 방법을 활용해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미지의 겹침은 화면에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중첩시켜서 표현하는 방식이고, 역선은 힘의 선을 나타내며 대상의 움직임의 궤적을 나타낸다. 상호 침투는 대상과 대상이 겹쳐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대상의 사실적인 형태보다는 왜곡된 형태로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미래주의 회화는 비례, 통일, 조화 등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전통적인 서양 회화와 달리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해서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

31.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이 글은 미래주의 회화의 정의와 등장 배경, 활용 기법, 미의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④처럼 미래주의 회화가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발라, 보치오니, 상텔리아, 루솔로 등이 미래주의에 참여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미래주의는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의 현실에서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 등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 3문단에서 미래주의 화가들은 분할주의 기법을 활용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해서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추론한다.

4문단을 통해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에 미적 가치를 부여한 미래주의 회화는 이후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감'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려는 생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한 것이 키네틱 아트라고 보기 어렵다. ③ 사진 촬영 기법을 회화에 접목시킨 것은 키네틱 아트와 관련이 없다. ④ 미래주의는 산업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것은 영감의 내용이 될 수 없다. ⑤ 키네틱 아트가 예술적 대상의 범위를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3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는 미래주의 화가 자코모 발라의 「강아지의 다이내미즘」이라는 작품으로, 여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대상의 모습이 분할주의 기법 중 하나인 역선으로 구현되고 있는데, 역선은 대상의 움직임의 궤적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대상을 사실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강아지를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속도감을 중시하는 미래주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③ 강아지의 움직이는 발과 바닥의 경계가 모호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상호 침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미지의 겹침을 통해 강아지의 발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첩시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⑤ 강아지를 끌고 가는 사람의 다리를 여러 개로 그린 것에서 이미지의 겹침을 활용한 분할주의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주목'의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이다.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은 '주장'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35～37] (고전소설) 작자 미상, 「최고운전」

「최고운전」은 실존 인물인 최치원의 삶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자 및 창작 연대 미상의 작품이다. 최치원은 뛰어난 학식과 문장력으로 당나라까지 이름을 떨쳤으나 신라 말기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 신분적 한계로 인해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은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작품에서 최치원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하늘나라의 선비들과 교류하며 글을 익힌다. 그는 승상 나업의 사위가 된 후 중국으로 가서 비범함을 인정받고 황소의 난을 평정하지만, 중국 신하들의 모함으로 외딴섬에 유배되었다가 도술을 부려 중국 황제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후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은 가야산에 은거하며 일생을 마친다. 이 작품은 신라의 신선이라는 평가를 받던 대문장가(大文章家)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삼아 당나라의 황제와 대결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우월감과 자부심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아이'는 돌함 속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으라는 왕의 명령을 알게 된 후 나 승상 댁의 노복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승상 댁의 노복이 된 이후에 돌함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승상의 부인이 '파경노는 생김새가～사람일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 승상 부인께서～승상도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파경노와 승상의 딸이 혼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때 파경노가～고운이라 하더라.'에서 '파경노'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치원이 승상의 딸을～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이해한다.

아이는 돌함 속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으면 관직을 높여 땅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임금의 명령과, 나 승상의 딸아이가 아름답고 재예와 절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거울 장수로 가장하여 서울로 들어간다. 이후 나 승상 댁으로 간 아이는 나 승상 딸의 거울을 고의로 떨어뜨려 깨뜨린 뒤 이를 구실로 그 집의 노복이 된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가 나 승상 딸과의 혼인을 통해 승상 집안의 일원이 됨으로써 신분 상승을 이루고, 나아가 시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울이 아이의 내적 욕망을 실현하는 데 동원된 소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아이는 승상 댁 사위가 된 뒤 돌함 속 물건에 대한 시를 지음으로써 승상에게 자신의 비범함을 입증한다. 따라서 거울을 통해 아이가 승상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② 아이가 승상 댁에 노복으로 들어간 후 말 먹이는 일, 꽃밭 가꾸는 일 등의 집안일을 맡게 된 것은 맞지만, 이것을 고난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통해 승상이 아이, 즉 파경노와 자신의 딸이 혼인하는 것을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울이 혼인을 둘러싸고 아이와 승상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될 것임을 예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아이는 거울 장수로 가장한 뒤 나 승상 댁을 찾아가 몰래 나 승상의 딸을 훔쳐보고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것이 나 승상 딸의 재예와 절개를 시험한 것은 아니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의 '시 짓기'를 통해 치원은 비범함을 발휘하여 황제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 짓기'를 통해 신분적 한계로 인한 울분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에서 중국 황제는 '시 짓기'를 내세워 봉인된 함 속의 물건을 맞히라는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 이를 통해 서사 전개상 신라가 위기 상황에 당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중국 황제가 제시한 '시 짓기' 과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여 신라 조정은 혼란에 빠진다. 이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인재가 없는 신라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에서 최치원이 시를 읊으면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청의동자가 나타나 말을 돌본다. 이는 초월적 존재의 등장과 맞물려 최치원의 비범함이 부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에서 승상이 자신의 사위가 쓴 것이라고 하며 치원의 시를 신라의 왕에게 바치자, 신라의 왕은 그 시를 중국 황제에게 바친다. 이는 치원의 '시 짓기' 능력이 승상과 왕에게 인정받았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38～42] (사회) 남종현 외, 「국제 무역론」

최근 과도한 관세 부과로 인한 국제 무역 분쟁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글이다. 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는 반면,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와 달리 가격이 하락하면 재화에 대한 공급량은 감소하고, 재화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러한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할 때,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이득에 해당하는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자의 이득에 해당하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생산자 잉여는 늘고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 하지만 늘어난 생산자 잉여보다 줄어든 소비자 잉여가 더 크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의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줄어들게 되므로, 관세 부과는 자국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관세 정책이 장기화되었을 때에는, 관세가 부과된 수입품을 원료로 하는 국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처럼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국내 소비를 감소시키고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 국제 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38.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

이 글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관세 정책이 국내 경기 및 국제 무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리를 설명한 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상반된 두 입장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관세 정책이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상황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결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관세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관세 정책에 대한 학설이 대두된 배경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 [출제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2문단에 따르면,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재화의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6문단에서 밀가루의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1문단과 7문단에서 관세가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7문단에서 관세는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추론한다.

5문단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는데,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관세 부과 전에 비해서 작아진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가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이유는,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과 같은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③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다는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④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다는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⑤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다는 것은 ㉠의 이유가 아니다.

4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다.

제시된 그래프는 P국의 바나나 국내 수요 및 국내 공급, 관세 부과 전 바나나의 가격과 관세 부과 후 바나나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4문단에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P국의 국내 수요량인 250톤에서 P국의 국내 공급량인 50톤을 뺀 200톤이 된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한 후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P국의 국내 수요량 200톤에서 P국의 국내 공급량 100톤을 뺀 100톤이 된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100톤이 줄어들게 된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P국의 바나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P국 수요량 250톤에서 P국의 국내 공급량 50톤을 뺀 200톤이 된다. ③ 관세를 부과하기 전 P국의 바나나 국내 가격이 톤당 500만 원이고, 관세를 부과한 후 P국의 바나나 국내 가격이 톤당 7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P국에서 부과한 관세는 톤당 20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④ 관세를 부과하기 전 P국의 바나나 국내 공급량은 50톤이고 관세를 부과한 후 P국의 바나나 국내 공급량은 100톤이다.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 결과 P국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관세와 수입 할당제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보호무역 정책에 해당한다. 관세와 수입 할당제 정책은 모두 국내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므로 관세는 수입 할당제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5문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A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수입 할당제는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 무역 상태에서 수입한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1문단과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관세와 수입 할당제 모두 보호무역 정책임을 알 수 있다. 7문단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관세는 국제 교역을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보기>에서 수입 할당제가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와 B 모두 국제 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43～45] (현대시) (가) 박재삼, 「추억에서」/(나) 최두석, 「담양장」

(가) 박재삼, 「추억에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진주 장터에서 생선을 팔아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담은 시이다. 1연은 어머니의 삶의 터전인 '진주 장터 생어물전'을 '해 다 진 어스름'의 시간과 함께 제시하며 전체적으로 시에서 느껴지는 무겁고 어두운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2연은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 생선은 잘 팔리지 않고, 늘 가난하게 살아야 했던 어머니의 삶을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라고 표현하며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한스러운 마음을 '울 엄매야 울 엄매'에 응축하여 담고 있다. 3연은 장사 가신 어머니를 '골방 안'에서 늦은 밤까지 기다리는 오누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4연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터를 오가며 어머니가 느꼈을 한스러운 정서를 '달빛 받은 옹기들'과 같이 '반짝'이는 눈물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나) 최두석, 「담양장」

이야기 시의 형태로 생계를 위하여 대바구니를 팔러 '담양장'에 다니시며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삶을 회상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에서는 과거의 어머니에 대한 회상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어머니의 삶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연에서는 '죽장의 김삿갓은 죽고', '참빗으로 이 잡던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전성 시절에'라는 과거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2연에서는 화자가 어렸을 때, 대바구니를 팔러 장터에 가신 어머니를 마중 나갔던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3연에서는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 멀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어머니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반짝이던 것인가'에서 어미 '-ㄴ가'가 반복되고 있고, (나)는 1연의 '김삿갓은 죽고', '이 잡던 시절도 가고'와, 2연의 '장에 가시고', '동생 손 잡고', '배는 고프고', '길은 한없이 멀고' 등에서 어미 '-고'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 역설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자조적인 어조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기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신새벽'은 어머니께서 진주 장터에서 생선을 팔기 위해 일찍 일어나셔서 장에 가시는 이른 새벽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어머니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는 시간적 배경이고, (나)의 '한밤중'은 화자가 장에 나가신 어머니를 마중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해가 저물면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시간적 배경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고기'는 어머니께서 생계를 위해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서 파는 생선이고, (나)의 '대바구니'는 어머니께서 생계를 위해 담양장에 내다 파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② (가)의 화자는 힘들게 장사를 하지만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삶을 한스럽고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감정을 '울 엄매야 울 엄매'에 담아 응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는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허리 굽은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현재까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허리 굽은 어머니'에는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골방'은 '우리 오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공간임에 비해, (나)의 '신작로'는 화자와 동생이 어머니를 마중 갔던 길이라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공간이다. ⑤ (가)의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에서는 생선을 팔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과거 삶을 떠올리고 있고, (나)의 '아, 요즘도 장날이면'에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담양장에서 대바구니를 팔고 있던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5.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을 파악한다.

'멀거니'는 '정신없이 물끄러미 보고 있는 모양'을 의미하는 부사어로, 대바구니를 사러 오는 손님도 없는 장터에서 우두커니 앉아 혹시나 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이 끝나 가서 장사를 마쳐야 하는 아쉬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작품 맥락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어머니께서 장터에서 '꼬박꼬박' 걸어오셨다는 것은, 늘 걸어서 장에 다니시며 대바구니를 파는 어머니의 일상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하염없이' 걸었다는 것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계속적으로 길을 걷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어머니를 마중 갔던 길이 길고 멀었다는 것을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해가 '덜렁' 졌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해가 진 상황을 부각한 것으로,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마중 나간 화자가 놀라고 겁이 난 심리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해가 진 상황에서 장터를 향해 계속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느끼는 내적 갈등을 '한참'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